

2008년 11월 26일 수 말씀

캠퍼스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뛰어야 합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들은 우리가 가는 곳 마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젊었을 때 뛰어서 그런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신경 써줘야 합니다. 기르기에 달렸습니다. 신경 안 쓰면 젊은이들이 춥고 배고파서 가버립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처음부터 개척을 하면 3년이 가도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개척 교회는 힘듭니다. 자리 잡아서 교회 만들려면 힘든 것입니다. 40명 정도 교회는 밀어붙이면 내년 6~7월 되면 100명 될 것입니다.

교인들은 다루기에 달렸습니다.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나무 갖다 놓고 침대로 만들면 침대가 만들어지고 공을 만들면 공이 만들어집니다. 다 나무 가지고 어떻게 깎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듯이 사람도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하나 앞에 하나씩 꼭 데리고 와라. 한 달 시간 준다.' 하면 다 데리고 옵니다. 교역자가 목회하기 달렸습니다. 나는 옛날에 하루에 교회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는 대로 됩니다. 자동차에 속도 눈금계가 있지 않습니까? 200키로 300키로 밟는 대로 갑니다. 그 만큼, 밟는 만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린애들은 전부가 전체가 유능하게 자랍니다. 교육이 다릅니다. 밀어 붙이면 탁탁 올라갑니다.

내가 그전에 전남 캠퍼스 300명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떼니까 쑥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여러 캠퍼스를 똑같이 밀어줬는데 전남대학교는 내가 가서 강연을 25번 넘게 해줘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섭리)뛰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목표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끄는 그런 이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중심해서 그 이념을 가지고 육계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서있지 않습니다. 보통 1시 2시에 일어납니다. 벌써 시간을 딱 잡습니다. 하루 종일 완전 잡아 버립니다. 뉴스도 일절 안 봅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가지고 썩 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책을 그렇게 엄청나게 80권 이상 쓰고 세계50개국 나라를 개척한 것입니다.

일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열심히 하십시오.

목포 20주년이면 20대니까 한창 뛰어야 될 때 아닙니까? 막 뛰어서 밀어붙여야 합니다. 뛰는 만큼 잘 해야 합니다. 잘 하는 만큼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잘 됩니다. 그 대신 빨리 뛰면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고 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압니까? 나는 사람을 악평하지 않고 선평만 합니다. 선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니 그 사람의 약점도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약점을 보면 또 장점이 자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딱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악평하는 것 너무 싫어하니까 항상 좋은 쪽만 보고 지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강한 차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별 한 마리만 들어가도 기름을 못 뿜어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곳을 평범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써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 보십시오. 청중강의를 2만 번이 넘게 하고 얼마나 지구촌을 돌아다녔습니까? 이렇게 많이 써먹어도 끄떡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 동안은 힘들어서 헛바닥 깨물면서 안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계속 그냥 실천하면서 무조건 헛바닥 깨물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운함 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건강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그 전까지는 좀 늘어지고 힘들어보였었는데 하얘지고 팽팽해졌습니다. 근력도 좋아졌습니다. 2000리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